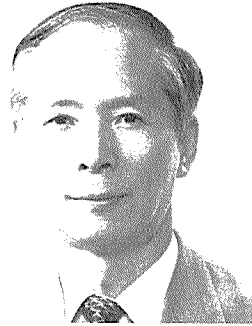


야생조류(철새) 이동경로(2)

두루미

김 성 수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수의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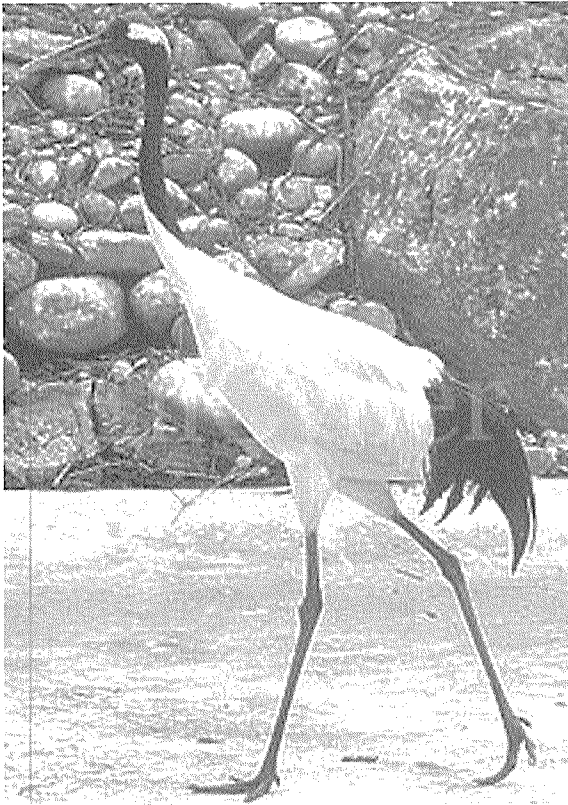
철새를 부르고, 철새는 국경이나 철책도 필요없이 러시아에서 중국과 만주를 거쳐 북한을 통과한 후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의 농경지나 갯벌, 호수, 강가에 머무르면서 추운 한해 겨울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한국과 러시아는 199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러시아 철새보호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였으며 향후 상호협정의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협정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으며 그 대상 조류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두루미를 비롯한 337종이며 철새 거래금지 및

철새보호대책, 철새보호연구 및 자료교환, 철새서식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417종의 철새 중 연중 국내에 서식하는 59종의 텃새 외에 358종이 철새인데 그 중 여름철새 68종, 겨울철새 114종, 통과철새 109종, 길잃은 미야철새 67종으로서 겨울철새 및 통과철새가 60%이상이다.

두루미를 비롯해서 오리류, 고니류, 황새 등과 통과철새인 도요, 물떼새 등이 두만강 유역에서 월동하며 여름철새인 백로, 왜가리 등은 따뜻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월동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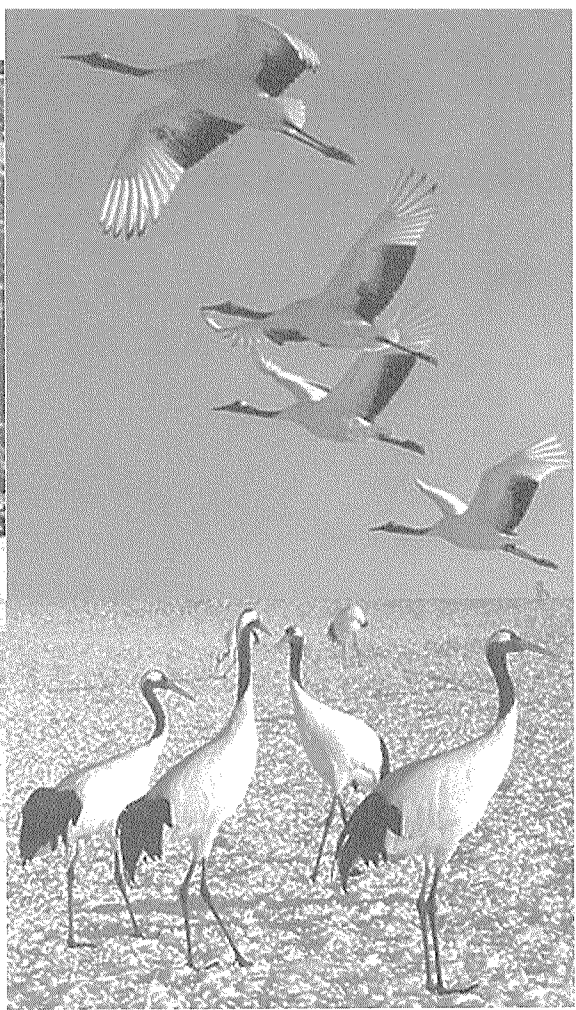
4~5월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두만강 부근으로 북상하여 번식한 후 가을에 다시 한국을 경유 남쪽으로 이동한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러시아의 한카호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 두만강 유역과 함경남도 금야를 거쳐 강원도 철원으로

“

자연은 철새를 부르고, 철새는 국경이나 철책도 필요없이 러시아에서 중국과 만주를 거쳐 북한을 통과한 후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의 농경지나 갯벌, 호수, 강가에 머무르면서 추운 한해 겨울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



이동하여 민통선 지대인 드넓은 철원평야에서 곡식을 주워 먹으면서 겨울을 지내고,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는 러시아의 한카호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 두만강 유역인 선봉과 금야를 지나는 무리들과, 중국에서 번식을 하고 압록강 하구인 의주를 지나 철원평야와 한강하구에서 월동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의 이즈미로 이동하여 겨울을 보낸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러시아의 콜리마, 캄차카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이 되면 두만강 하구와 압록강 하구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철원평야, 주남저수지, 서해안 서산 간척지, 김제 만경강 유역, 남해안의 호수 및 농경지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겨울을 넘긴 후 이듬해 2~3월에 북으로 훨훨 날아간다. **양계**

* 필자 연락처 : 017-285-7581